

| | | | | | |
|--------|--------------------|-----------------------|----|------|----|
| 신반포중학교 |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 과목명 | 국어 | 과목코드 | 01 |
| | 2020학년도 7월 27일 1교시 |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 | | |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선택형 답란에, 서·논술형은 별도의 서·논술형 답란에 작성하세요.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빛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덥히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에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나) 눈 온 다음 날 산에 가면 중동이 부러졌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가지들로 눈이 아프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다.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나무들은 견딘다. ……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몸을 덥히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잎을 낼 것이다.

* 중동: 중간이 되는 부분

1.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생생하게 전달했다.
- ② 규칙적인 음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④ 부정적 시어를 사용하여 걱정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 ⑤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했다.

2. (나)를 토대로 (가)의 시인이 어떤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는지 추측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계절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곤 했다.
- ② 성공만을 삶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인의 삶의 자세를 반영하였다.
- ③ 시련을 거친 후 새잎을 내는 나무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창작하였다.
- ④ 중동이 부러진 나무를 보며 나의 생활이 찢긴 듯한 느낌을 받아 창작하였다.
- ⑤ 날이 슬슬 더워지면서 나무 속에서 갑갑하다고 외치는 물의 마음에 공감하였다.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가 겪은 시련과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
- ③ ㉠, ㉡은 나무가 아파해야 했던 원인을 나타낸다.
- ④ 나무가 이파리를 피우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난다.
- ⑤ 나무의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가 담겨있다.

4. (가)의 ‘나무의 삶’을 토대로 얻은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적절히 감상한 사람끼리 묶인 것은? (4점)

< 보기 >

- 송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땅가져가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
- 정원: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민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줄 것 같아.
- 준완: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로 권해주고 싶었어.
- 석형: 오늘도 밤이 늦도록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잠을 안자고 있는 친구에게 읽어주고 싶은 시야.
- 익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끊임없이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더 감동이었어.

- ① 준완, 익준
- ② 정원, 석형
- ③ 석형, 송화
- ④ 익준, 석형
- ⑤ 준완, 송화

☞ 뒷면에 계속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날 중국의 관료이던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 시는 이러했다.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월을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 하려는 뜻을 전하고자 하신 듯하여이다.

이 답 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관료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 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 내었다.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값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 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나)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빗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빗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 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 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쭙었다.

“스님, 빗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제야 파르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빗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박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 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빗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중략)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승냥 찾은 격이려니와, 빗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이십 년 또는 삼십 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꼬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山寺)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다)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 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줄 때가 많았다.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라)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감아 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 다음 장에 계속

5.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성격은? (3점)

- ①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하다.
- ②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③ 털털거려서 사소한 실수를 잘 하곤 한다.
- ④ 장난기가 많아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곤 한다.
- ⑤ 집중해서 하는 일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다.

6. ㉠을 토대로 본 글쓴이가 바라보는 실수는? (3점)

- ① 모든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 ② 우리 삶에 여유를 주는 긍정적인 존재이다.
- ③ 갈수록 실수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 ④ 실수를 해결할 때는 여유롭게 해야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 ⑤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할 필요 없다.

7. 이 글을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감상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적절한 속담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잘 이해됐어.
- ② 스님의 눈빛을 ‘언어 떼’에 빗댄 표현이 생생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어.
- ③ 글쓴이가 스님에게 빗을 빌리려는 장면에서 지은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인상적이었어.
- ④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실수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위로를 받고 희망을 느꼈어.
- ⑤ 글쓴이가 스님을 당황하게 만든 것처럼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으니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인조 때, 이 상공(相公)의 아들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어느 날 박 ㉠처사(處士)가 이 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청하고, 박 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 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그러나 박 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薄色)임을 알고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나)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 오너라.”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절길을 지체케 한단 말이나?”

㉢추상(秋霜)같이 고함을 지르니 계화가 무안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냈다.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절길을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더니 계화를 잡아서 매 삼십대를 때려 물리쳤다. 계화가 돌아와 매 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

(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두 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낮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알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오?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妊姒)에 비할 것이오. 우리 가문에 과분한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오.”

(라) 박씨 곁에는 계화만이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 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그간 서방님은 한번도 부인에게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의 박대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공방(獨守空房)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사람의 길흉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기에 탕왕은 하결에게 간함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간했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채에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 뒷면에 계속

(마)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부쳤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다.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에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순식간에 피화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切痛)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8.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삶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람을 차별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
- ②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상대를 결정할 수 있었다.
- ③ 하늘이 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 ④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쳐 가문을 빛내는 것을 중시했다.
- ⑤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여성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9. ㉠~㉤의 뜻풀이로 옳은 것은? (3점)

- ① ㉠ -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
- ② ㉡ - 아주 못생긴 얼굴
- ③ ㉢ - 호령 등이 위엄이 없고 몸가짐을 가볍게
- ④ ㉣ -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을 품고
- ⑤ ㉤ - 잘못 없이 벌을 받아 답답하고

10. (가)~(마)에 나타난 영웅소설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두 개 고르면? (4점)

- ① (가) - 조력자를 만나 시련을 극복한다.
- ② (나) - 일찍 버려지거나 시련을 당한다.
- ③ (다) - 자신의 능력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 ④ (라) -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⑤ (마) -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해결한다.

11. (가)~(마) 중 <보기>에 나타나는 고전소설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3점)

— < 보기 > —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으로 들어오는지라,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니, 홀연 한 줄기의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 데 없고 첩첩산중에 풍경이 굉장하였다. 크게 놀란 특재는 길동의 조화가 무궁한 줄 알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이 끊어지면서 층암절벽이 가로막자,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가? 무죄한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으랴?” 하고 주문을 외니, 홀연히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물을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자갈이 날리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2. (가)~(마)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계화 : 박씨의 여종으로 식구들에게 박대 받는 박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 ② 이시백 :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며 남성의 권위가 여성의 권위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 ③ 상공의 부인 :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공의 말을 듣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④ 용골대 : 큰 공을 세운 청나라의 장수로 피화당을 공격하다가 박씨에게 패하고 분하여 통곡을 한다.
- ⑤ 상공 : 이시백의 아버지로 박씨의 재주와 덕행을 높이 인정하며 피화당에서 홀로 지내는 박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13.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 < 보기 > —

㉠ 결말이 대부분 비극적이다.
 ㉡ 배경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 충, 효 등의 유교적 교훈을 담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다음 장에 계속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 간다. 병조 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한다.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용울대 형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한다. 박씨는 피화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나)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다. 그러자 갑자기 오색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북소리,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신장들이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사면에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 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재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오?”

(마)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치며 그녀에게 정렬부인의 칭호를 내린다.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박씨는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1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점)

- ① 실존 인물이 등장하여 사실감을 부여한다.
- ②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반영했다.
- ③ 당시 지배 계층의 소망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 ④ 다양하고 평범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고전 소설이다.
- 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사용했다.

15. 이 글에 나타난 박씨의 활약을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3점)

- ① 나라를 지키지 못한 당시 사대부 남성들을 위로하고 있다.
- ② 신분을 중시하는 조선의 전통적인 관습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도술을 부리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 ④ 남성중심사회를 비판하고 여성도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여성의 외모가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여성 영웅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다.

16. <보기>가 이 글의 역사적 배경임을 고려할 때, 이 글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쓴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4점)

— < 보기 > —

인조는 삼전도로 나아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였고, 청나라는 소현 세자와 대군, 그리고 수많은 인질들을 묶어 청나라로 돌아갔다.

- ① 당시 강국이었던 청나라와의 화친을 위해서
- ② 당시 왕이었던 인조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 ③ 청나라에 불모로 잡혀있는 세자와 대군을 구하기 위해서
- ④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가 당한 치욕을 씻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 ⑤ 태어날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 뒷면에 계속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선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는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그 연을 찾아 일손을 멈추곤 했다. ㉡그리고 그 적막스런 봄 하늘을 바라보며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다.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는 수가 없는가 보았다.

(나) “우리 집 처지에 상급 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이름자나마 쓰고 읽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던 소리가 아들놈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

“상급 학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 학교 안 보내 준 대신 연실이나 많이 만들어 줘.”

상급 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 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했다.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제철에는 남의 집 애들 연 띄우는 거나 곁에서 볼 부러워해 오던 녀석이었다.

(다) 어머니는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 냈고, 아들놈은 그때부터 하고한 날 연에만 붙어 지냈다.

봄이 되어 제 또래 아이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 읍내 상급 학교로 가 버린 다음에도 아들놈은 혼자서 그 파란 봄 보리밭 위로 하루같이 연만 띄워 올리고 있었다. 아침나절에 띄워 올린 연이 해 질 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맴돌았다.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라)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줄을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A]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어머니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연이 하늘

을 나는 동안은 어느 집 양지바른 담벼락 아래, 마을의 회관 뜰 한구석에, 또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어느 보리밭이랑 끝에 ㉣그 봄 하늘처럼 적막스런 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철 늦은 연날리기에 늦이 나간 아들놈을 원망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할 뿐이었다.

(마)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결국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은 유독 봄바람이 들녘을 설치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이날도 고개 너머 들밭 언덕에서 봄 무릇을 캐고 있던 참이었다.

바람을 태우기가 좋아 그랬던지 아들놈은 이날따라 연을 더하늘 높이 띄워 올리고 있었다. 마을에서 띄워 올린 녀석의 연이 고개 이쪽 어머니의 머리 위까지 까맣게 떠올라 와 있었다. 얼레의 실이 모조리 풀려 나와 하늘 끝까지 닿고 있는 것 같았다.

무릇 싹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발길이 자꾸만 헛디딤질을 되풀이했다. 연이 너무 높은 데다가 전에 없이 드센 바람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탓이었다. 팽팽하게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 연실 끝에서 ㉥드센 바람을 받고 심하게 오르내리는 연을 따라 어머니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 하지만 이제 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텅 빈 하늘만 하염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만 그 무심한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가는 한숨을 삼키며 허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가,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1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두 인물의 이야기를 각각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어머니의 심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어린 서술자를 등장시켜 가난한 현실을 더욱 비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다음 장에 계속

18. [A]의 내용을 참고할 때, ‘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점)

- 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다.
- ②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원망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 ③ ‘어머니’는 연을, ‘아들’은 연에 달린 연실을 상징한다.
- ④ 낯선 세계로 떠나고 싶은 ‘아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머니’의 고된 삶을 위로해 주는 소재이다.

19. (가)-(바)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한다. 계획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3점)

- ① 연날리기를 고려하여 영화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로 설정해야겠어.
- ② 마지막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와 사랑을 드러내야겠어.
- ③ 바람이 불지 않아 연날리기에 실패하는 장면을 통해 ‘아들’의 좌절감을 드러내야겠어.
- ④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집은 시골의 양옥집으로 설정해, 경제적인 윤택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상급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아들’을 바라보는 표정에서 ‘아들’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야겠어.

20. ㉠와 같이 직유법이 사용된 것은?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밤나무에서 알밤이 후두둑후두둑 떨어지는 가을철이었습니다.

청서가 겨울랑식을 장만하려고 ㉠밤나무밑에다가 부지런히 알밤을 모아놓는데 지나가던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알밤을 여기저기에 모아놓기만 해서 뭘하나? 한톨이라도 거두어들여야 제것이지. 그러니 어서 가져다 ㉡고간에 넣으라구.》

다람쥐의 말을 들은 ㉢청서는 알밤을 고간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서는 길가에서 메돼지를 만났습니다.

《모아놓은 알밤이야 어디 가겠나? 그러다 알밤이 ㉣떨어지는 철을 놓치겠네. 이러니저러니해도 한톨이라도 많이 모아놓아야 제것이지.》

㉤메돼지의 말을 듣고난 청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메돼지의 말이 옳아. 많이 모아놓는게 제일이야. 다람쥐의 말만 들었더라면 일을 망칠뻔 했어.) 청서는 메돼지의 말대로 땀흘리며 이산저산 밤나무밑에다 알밤을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알밤무지에 《청서》라고 쓴 표말을 꽂아놓았습니다.

- 한태수, 《큰너구리가 배워준 요령》

21. 윗글은 북한의 언어 자료이다. ㉠~㉤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 : 남한에 비해 띄어쓰기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② ㉡ : 남한과 달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③ ㉢ : 남한의 맞춤법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 ④ ㉣ : 남한의 맞춤법과 같이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 ⑤ ㉤ :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가 남한과 다르다.

22. <보기>는 남북한 표기 규범에 관한 설명이다. A, B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3점)

— < 보기 > —
남북 표기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두음법칙 표기(한자어 첫머리의 ‘ㄱ’과 ‘ㄴ’을 ‘ㄷ’이나 ‘ㅇ’으로 적는 표기) 차이로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를 (A). 이 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B)이다.

- | A | B |
|-----------|------|
| ① 한다 | 알밤 |
| ② 한다 | 요령 |
| ③ 하지 않는다 | 알밤무지 |
| ④ 하지 않는다 | 겨울랑식 |
| ⑤ 할 때도 있다 | 이산저산 |

☞ 뒷면에 계속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
| 1 | 1 | 21 | 5 |
| 2 | 3 | 22 | 4 |
| 3 | 2 | 이하 | 여백 |
| 4 | 1 | | |
| 5 | 3 | | |
| 6 | 2 | | |
| 7 | 5 | | |
| 8 | 5 | | |
| 9 | 2 | | |
| 10 | 2,5 | | |
| 11 | 5 | | |
| 12 | 3 | | |
| 13 | 5 | | |
| 14 | 1 | | |
| 15 | 4 | | |
| 16 | 4 | | |
| 17 | 3 | | |
| 18 | 4 | | |
| 19 | 2 | | |
| 20 | 3 | | |

| 번호 | 정답 |
|----|---|
| A | <p>㉠ 7(개)</p> <p>㉡ ㄴ, ㄷ, ㄹ</p> <p>㉢ ㄱ, ㅋ, ㆁ</p> <p>㉣ 여린 입천장(소리)</p> <p>㉤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p> <p>㉥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p> <p>㉦ ㄹ</p> <p>㉧ 거센소리</p> <p>㉨ 예사소리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거센소리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는 것</p> |
| B | <p>㉠ 단모음은 발음할 때 <u>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소리인데, ‘ㅏ’, ‘ㅑ’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므로 단모음이 아니기 때문이다.</u></p> <p>㉡ ‘ㅏ’, ‘ㅑ’는 모두 (입술 모양이 둥근) <u>원순 모음</u>이고, (혀의 높이가 높은) <u>고모음</u>인데, ‘ㅏ’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 <u>후설 모음</u>이고, ‘ㅑ’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 <u>전설 모음</u>이다.</p> <p>㉢ ‘ㅏ’와 ‘ㅑ’의 차이점은 ‘ㅏ’를 발음할 때 <u>혀의 높이를 ‘ㅑ’보다 약간 낮게 발음해야 한다.</u></p> |